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살인입니다

홍지

2008년 4월 8일 오전 7:22

안녕하세요?

지난 **3월 14일 약제비적정화방안의 첫 시행 대상인 백혈병 치료제 스프라이셀의 가격 협상**(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 결국 결렬되었습니다. 협상장에 가서 통통 부은 팔과 다리를 주무르고, 제 시간에 약도 드시지 못하면서도, 제약회사의 말도 안 되는 가격 책정에 항의하신 환자분들, 그리고 함께 했던 활동가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의학적/경제적 효과가 입증된 약에 대해서만 보험을 적용 하겠다는(선별등재제도, positive등재방식), 상식 중의 상식적인 제도입니다. 옛날 약장수들처럼 개똥 위에 쇠뿔 눈 것도 약이라고 우기면, 이것도 그냥 다 사줘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그냥 이것 저것 따지지 말고 "닥치고 등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짜약이든, 듣보잡약이든, 만병통치 고약이든 가리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흑시라도 사단이 나면 그때 가서 판매를 안하게 하면 된답니다.(자동등재제도, negative등재방식)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이는 쪽은 누구일까요?

얼마 전 한국 노바티스 신임 사장으로 피터 야거란 사람이 취임했습니다. 이 사람은 취임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약값 결정 과정이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진출한 제약회사들이 한국 시장의 투명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이 말 한 마디만 떠오르더군요.

"까.분.다."

적반하장도 이 정도면 살인입니다.

노바티스는 **2001년 1월에 2만 5천원이라는 악명높은 가격으로 글리벡을 내놓은 회사입니다.** 글리벡은 하루에 4~8알을 복용해야 하는 약입니다. 한달 약값만 300~600만원이 드는 비용인 거죠. 당시 알려진 글리벡의 생산 원가는 66센트, 우리 나라 돈으로 1000원도 들지 않았습니. 과연 노바티스가 '약값의 투명성'을 가로막는 그 책임 주체가 마치 저기 저 안드로메다에 사는 누군가 인 것처럼 이야기 해도 되는 걸까요?

글리벡에 내성이 생길 경우 쓰이게 되는 **신약 '스프라이셀'은 7년 전 끔찍했던 글리벡의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지만, 스프라이셀을 생산하는 BMS사는 한 알에 7만원에 가까운 약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비난이 거세지니까, BMS는 '6만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인심 쓴 척 합니다. 이에 정부는 5만 5천원까지 내려보겠다고 합니다. 5천원 깎아주고, 1만원 깎아줘서 "아이구~ 감사합니다."해야 할까요?

7만원이든, 6만 5천원이든, 5만 5천원이든 1년에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값은 4천만원이 넘습니다. 5천만원이든, 4천만원이든 환자들은 도대체 그 약값의 기준이라도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금으로 떡칠을 해도 하루 약값이 14만원, 20만원 나오지는 않을 것인데 말입니다.

약값을 제시하는 제약회사에게 기준이란 없습니다. 명품 핸드백이 수백에서 수천만원 하는 이유가 따로 없듯이 말입니다. 아마 BMS가 최초로 스프라이셀의 약값으로 1정당 10만원을 들고 나왔다면 지금 정부는 8만원, 9만원 수준에서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죠. **이것이 정부와 제약회사가 벌이는 약가 협상의 실체인 것입니다.**

도대체 기준 없는 약가 협상을 환자가, 그리고 민중들이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스프라이셀 약가 협상은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상 대상이 되는 약입니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된다면, 이것이 모델이 되어 앞으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신약들에 대해 제약회사들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후 모든 제약회사들이 이렇게 말하겠지요. "스프라이셀도 BMS 뜻대로 했으니까, 우리도 우리 뜻대로 할 거다!!"

그리고 **약에 대한 민중의 통제력**은 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약은 물과도 같습니다.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애당초 약은 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리벡, 스프라이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약은 제약회사의 무한 독점 이익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명품 아파트나, 명품 핸드백이 되어, 다수 민중의 세계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백혈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HIV/AIDS 감염인들, 그리고 질병을 가진 모든 이들과 앞으로 길고 험난한 싸움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여정에 **인권활동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합니다!!!**